

◆소개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이 날카롭게 여러분들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격노케 하는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탄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데 말씀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막강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교재를 가지고 5가지의 확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는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탄이 의심을 심어줄 때 확신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교재 설명

교육 간사는 비닐포장지 안에 담겨진 교재 <그리스도인의 확신>, 소책자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휴대용 <성경암송단어장; 10장>과 함께 성경말씀 <프린트 A4용지>에 대해 설명을 해 줍니다.

◆성경말씀 암송 방법 소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 장절 + 내용 + 장절 (장절은 2번 반복)

예를 들면, 1과 구원의 확신은 다음과 같이 암송합니다.

구원의 확신 + 요한일서 5:11-12 + 또 증거는... 생명이 없느니라 + 요한일서 5:11-12

주제별 말씀 5가지를 완전히 외우는 비결은 복습에 있습니다. 매일 새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지금까지 외웠던 구절들을 복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 카드를 주머니나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자주 복습하는 것입니다.

제1과 구원의 확신

먼저 요한일서 5:11-12을 외우십시오.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 : 어떤 위험이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인인 인간이 받게 될 형벌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 이후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 건짐을 받게 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묵상 요한일서 5:11-12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또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끝없이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란 최고의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참고] 영생(eternal life)과 구원(salvation)의 관계

인간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상태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오직 구원이고, 그 구원의 목적과 결과가 영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영생이 뒤따라오는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는 오직 구원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 =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들이 없는 자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자 =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증거는 이것이니...”

1.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 주셨습니까? 로마서 5:8

①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원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이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대표자(예: 한국축구 국가대표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3:23)

②하나님께서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롬 6:23a)

죄인인 인간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마치 사형집행장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을 하나님은 살리고자 죄인인 인간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5:14b)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겨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 기증자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살리고 싶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도 후회 모라자지 않나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

2.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31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빛을 다 갚았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빛이 다 지불되고, 자유로워진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영수증을 꺼낼 것입니다. "여기 영수증이 그 증거입니다." 영수증에 기록된 증거는 빛이 청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며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3.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2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했습니다. 그림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가 죄로 인해 분리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죄성이 생겨났으며, 육체적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고통이나 질병 없이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꽃꽂이의 꽃은 아름답고 귀하기에 중요한 자리에 놓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살았다고 하여도 단시일 내에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로부터 잘리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 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 뿌리가 단절된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 인간은 ‘죄인’으로 속성이 다르기에 함께 같은 장소에서 공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한 예화(설거지가 필요한 그릇VS깨끗하게 씻긴 그릇)를 통해 설명 하는 것도 좋다.

4.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됨니까? 에베소서 2:8-9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선행, 종교, 도덕 등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허공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짓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수장에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과 화학약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오염된 물이 스스로 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 정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에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은 열심히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18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판사는 죄인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에게 무죄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만일 판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라 한다면 그는 자기 직무를 오용한 결과로 그 권한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무죄라고 선언할 수 없기에 인간은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인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치룰 죄의 값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바로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6.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요한복음1:12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10)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이끄는 주체가 있기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인 저의 죄를 위해 그 값을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제대로 이해하기]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계시록 3장의 “불찌어다”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전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하는 시점에 있어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도방법인 사영리에도 이 계시록 3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려 할 때, 당사자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지만, 본문의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부분에 관해 곰곰이 숙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전체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본문들끼리도 충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충돌이 일어나는 다른 본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들 중의 하나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전도시에 사용하는 이 본문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충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추운 날, 문밖에 서서 언 손을 호호 불면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제발 열어다오 네가 열어 주어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 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문 손잡이는 안 쪽에만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회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악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그러합니까? 과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을 선택하고, 죄를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회심의 주권에 관하여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주권을 높이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들은 우리를 좀 더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 구절은 어떤 배경 하에서 씌어졌습니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20절만 쓰지 않고, 19절을 함께 썼습니다. 20절의 바로 앞절인 19절은 이 구절이 “믿지 않는 자가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배경이 아니라, “믿는 자가 범죄한 상황에서 회개를 요청하는” 배경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즉 이 구절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5절)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와 실수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차지도 더웁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17, 18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악에 처해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 으나, “나는 부자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17절)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자신들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들에게 권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18절)

이것들을 정리하는 말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배경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대한 배경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하반부의 말씀은 철저히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에 빠져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볼찌어다...”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악에 빠져 있는 자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20절의 바로 앞이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20절의 본문은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회개요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하에 나오는 주님과 식사 문제도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집니다.

20절은 회개를 요청하는 주님께 문을 열었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식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주님의 회개요청에 문을 연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 상을 겸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인데, 성찬은 권징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권징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징벌하는 도구 중에 ‘수찬 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성찬을 금지시킴으로서 교회의 회중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그로 인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중요한 교회의 권징도구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식사,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회개요청인 권징을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다시금 성찬이 회복될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그들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문맥도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과 식사도 피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과 식사는 항상 직접적으로 성찬을 가리키거나, 성찬이 상징하는 바인 하늘에서의 식사를 가리킵니다. 이 내용이 그러한 해석들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문

맥을 잘 살필 때, 이 구절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청하는 것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의미까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7. 요한복음 5:24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말씀에는 죄인 된 인간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3가지의 결과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거 :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에는 죄로 죽은 시체와도 같았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월버 체프맨(J. Wilbur Chapman)이 청년시절에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2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월버 체프맨은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글쎄요.” 무디 선생님은 월버 체프맨에게 다시 한 번 더 읽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무디는 월버 체프맨에게 버럭 화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이지...” 월버 체프맨은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 요한복음 10:27-29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즉 구원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굳은 신념이자, 의지입니다.

●서로 손목을 엇갈려 잡는 예화

다른 사람과 손목을 엇갈려 잡아서 한 사람이 손을 놓아도 상대방이 놓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의 손목 잡기를 연출합니다. 자신이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9.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17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은 지나갔고, 새 생명과 새로운 것들이 자신에게 주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에 나라는 그릇에 더러운 오물이나 음식물이 묻어서 새 것을 담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치 설거지를 하여 깨끗한 그릇이 된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더러운 그릇에서 깨끗이 씻긴 그릇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8가지 목록들이 변화의 내용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그릇에 담으셨고 또한 앞으로 무엇을 담길 원하나요?

다음 중 당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란에 표시하십시오)

- ☐ 내적 평안
- ☐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 ☐ 죄로부터의 승리
- ☐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 ☐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 ☐ 태도의 변화
- ☐ 용서하려는 마음
-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교육간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교육생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변화의 목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외어쓰기 요한일서 5:11-12

적용 요한일서 5:11-12

요한일서 5:11-12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한다고 했기에 알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지의 여부는 느낌에 의존해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실은 성경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요한일서 5:11-12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살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약속어음을 받듯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음'이라는 건 몇 월 몇 일이 되면 어음에 적힌 금액을 주겠다는 증서 같은 것이니까요. 정해진 날짜가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받은 증서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죽으셨을 때 현금을 받듯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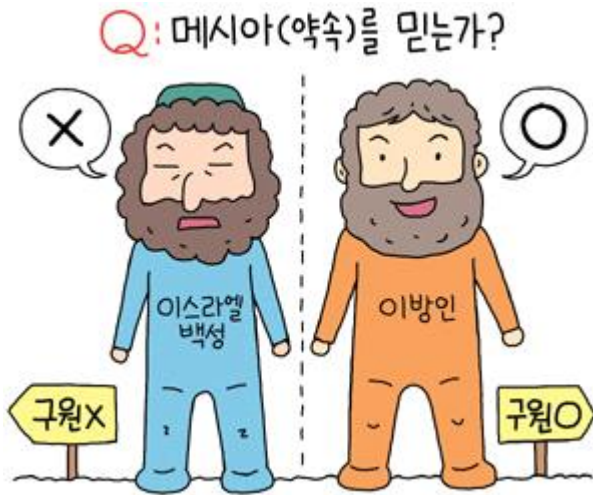
》 신·구약 시대별 구원받는 방법은?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 메시아 약속을 믿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없었겠지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아래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억지로 율법을 따르다 해도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옳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신실하고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육신이 주님

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in my flesh) 하나님을 보리라. (요기 19:26)

성경 중 가장 오래된 책인 요기의 이 놀라운 말씀을 한국적 종교관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탓에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육체 밖에서'라고 잘못 번역해 놓았지만, 말씀은 독자의 이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보아야 비밀이 풀립니다.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권한이고, 공평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즉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물론 구원의 기회가 됐지만, 그들이 교만함으로 메시아를 오해하고 거부함으로써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므로 누구에게도 전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1:11)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처럼 평화가 넘치는 세상에서도 마지막에 마귀가 잠깐 놓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고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의 개념]

자유의지와 예정설의 모순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중에 하나다.

그런데 "예지"와 "예정"을 구분할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예정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의 초점 중에 하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예를 든다면,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예정하신 것인가,

내가 스스로 결정한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정설을 잘못 이해하여,

만세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그것은 내 자유와 선택을 넘어서 운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정설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인류역사는 하나님의 심심풀이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린다.

이 문제에 확실한 답은, '죄짓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러한 상황을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본다.

바둑을 둘때,
굉장한 고수와 아주 초보자가 겨루는 상황과 비슷하다.

굉장한 고수는 어느 특정한 위치에 초보자가 돌을 놓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지라도 고수는 절대로 초보자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수가 미리아는 힘(예지)을 이용하여 상대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지와 예정을 혼동한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초보자에게 어떤 악물을 먹이거나 사고를 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초보자의 의사를 맘대로 조정하여 경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절대로 자유라고 할수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독재가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침해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
완벽한 예지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대화와 교육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스로 그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이고 그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볼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된다.

[예정의 범위와 시기]

예정의 범위

개인의 운명은 정해놓지 않았다.

성경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나오는 것은 개개인의 운명을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건축가가 집을 설계할때 집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계획하고 강도, 크기, 수량 등의 합격 기준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사용될 벽돌의 생산지나 생산자들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교회를 계획하셨지만, 그 멤버에 누가 들어가고 못들어갈지는 정하지 않으셨다.

예정의 시기

예정의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요도" 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먼저 계획하고,
가장 사소한 것은 가장 나중에 계획한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예정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후에 예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의지는 예정된 것이 아니다.

교회의 예정과 개인의 예정의 차이점

예를 들어 내년엔 서울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몇 명 뽑을지 미리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하자.
상황에 따라 '800명을 뽑자라'고 인원수를 예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시험 점수가 몇점 이상의 사람을 모두 다 뽑자'라고
정하기도 한다.

이때 분명히 서울대학교 신입생을 예정을 한것이다.
그러나 그 정원에 누가 끼지는 정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창세전에 '교회(건물이 아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셨다.
그러나 그 멤버에 누가누가 들어갈지는 정하지 않은 것이다.
본인 하기에 달린것입니다.

예정과 예지의 차이

예정과 예지는 비슷하지만 확실히 서로 다르다.
예정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강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지는 미리 아는 것뿐이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짜 욕심 많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길가다가 돈을 주웠다면 우리는 그 것을 주인
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을 예상할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예지에 속한 것이다. 예정은 그 상황에서 미리 계획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역사를 꾸려나가는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보고 마음 상할 것이 분명
하다. 그런데도 시험을 본다. 그렇다면 시험을 100점 못받는 사람이 분명히 더 많은데 왜
시험을 보는 것인가?

시험을 보는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잘 본사람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고,

잘 못 본사람에게는 꾸지람과 벌을 주기도한다.

결국의 목적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쌓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서 인간이 불행졌다는 것만 불평한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가장 고생한 분은 예수님이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포기한 기회를 다시 주시고 제대로 인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이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식으로 예정론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셨다는 가정을 할때만 가능하다.

실제는 하나님은 개개인의 운명은 개개인이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다만 그 숫자가 몇이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에 맞는 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신 것이 진정한 예정론의 의미이다.

■추천도서

불신지옥을 넘어서 (출판사 : 홍성사)

1장 불신지옥이 낳은 현실에서

2장 성경은 과연 불신지옥인가?

3장 마태복음 25장 -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다

4장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2과 기도응답의 확신

먼저 요한일서 5:11-12을 복습하십시오.

정확하게 암송하였으면 □에 표시하십시오.

□ 요한일서 5:11-12

이제, 요한복음 16:24을 외우십시오.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묵상 요한복음 16:24

기도란 무엇입니까?

①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신앙인이란 누구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은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②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간구와 응답이란 대화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이름으로 → 예수님의 이름으로

◆ 너희가 내 이름으로(in my name)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in my name)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하면 받게 됩니다. 응답이 있어서 기쁨도 가득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참고] 하나님의 응답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둘째, 문자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을 말합니다. 넷째,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섯째, 직감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에서 알아지고 느껴집니다. 여섯째, 강단이나 사람, 어린아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곱째,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흔히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 음성은 마치 자신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는 신비한 음성입니다. 이 생각으로 다가오는 음성은 꾸준히 생각나기도 하고 혹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형태를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리는 이유는 신약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신자 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14: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1. 마태복음 7:7-8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1) '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 라고 하는데 이는 '요청하라' 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라' 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선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데,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되면 자기 잘 나서 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찾으라' 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이테' 라고 하는데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3) '두드리라' 타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즉 문을 두드리는 것은 반응을 얻어 내고 닫힌 문을 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얻어내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생기는 든든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최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으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7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간구하는 기도제목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친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알고 얼굴을 보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존경하며 신뢰하는 관계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일이 수반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말씀을 읽고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관계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서 내 말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며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봤거나 아니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선뜻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괜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니가 언제 날 봤다고…, 지금 제정신인가?’

요한일서 5:14-15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

신발을 살 때 자신의 발 크기보다 너무 큰 사이즈를 사면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사이즈를 사면 아예 발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디자인은 무척 마음에 들지만 자신의 발 크기와 신발 크기가 맞지 않을 때는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조금 떨어져도 발과 신발 크기가 적합할 때 좋은 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발과 신발 크기가 적절하게 맞아야 신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자신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성경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는 것을 현재 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봐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3.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 33:3 전에 알지 못하던 놀랍고 은밀한 응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예상 밖의 일이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답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A를 구하며 B라는 응답을 기대했는데 B보다 훨씬 좋고 전혀 기대조차 안했던 C를 응답으로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예: 씨프라이즈 생일파티)

●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새끼손가락이 오르간 뚜껑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의 끝을 잘라버리는 편이 빨리 낫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실 테니 한번 붙여봅시다." 껴낼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란 손가락이었기에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밤새도록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싸매둔 붕대를 풀자 핏자국 위에 새끼손가락이 핑크색으로 보였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적으로 붙었어요." 전날의 그 의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어 불가사의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20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규모가 큰 공원에 가보면 큰 그릇 모양의 분수대를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놓인 그릇 모양의 받침대에 물이 차서 넘치면 그 아래에 받쳐 있던 그릇에 물이 찹니다. 이렇게 5층 정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맨 위에 놓인 그릇에 물이 차서 넘쳐야 그 아래 그릇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시장에 가보면 리어카에서 땅콩을 파는 상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인은 구매하는 손님에게 나무상자로 한 되, 두 되 판매를 합니다. 상인은 나무상자에 수북이 쌓여 있는 땅콩들을 봉지에 담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두 손으로 땅콩을 담아서 땅콩이 담긴 나무상자 위에 뿌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기도라는 그릇에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 큰 깨달음, 자족하거나 흡족한 마음도 역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도응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마태복음 7:9-11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Best)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합니까?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No) 칼은 강도에게 살인 무기이지만 주부에게는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리 용도가 아닌 살인 무기일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

까?

나중에 주십니다.(Wait)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응답해 주는 것이 유익하면 시일이 지난 뒤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진로, 배우자, 창업, 유학, 어떤 선택이나 결정사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3기)는 말도 있습니다.

5.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3 정욕(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매에게 교제 나누는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교제 나누는 형제 한 명으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형제를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평생 일 안하고 편안하게 놀고먹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시편 66:18 마음에 죄악을 품는 기도

기도의 동기나 구하는 기도 내용(목적)이 악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기관, 병원, 군대처럼 단체가 움직이는 장소에서는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급식을 합니다. 줄을 서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 식판을 내밀면 밥이나 반찬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그 식판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판이 더러우면 깨끗한 식판으로 바꾸어서 다시 배식 선반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식판이 죄로 더러우면 응답이라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요즘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 가서 한 집 털려고 합니다.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상사가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내일 지방으로 출장 갈 때 차라리 교통사고나 나서 몇 달 동안 병원 신세 좀 지게 해 주세요!”

6. 빌립보서 4:6-7을 읽고 아래 빈칸을 채우십시오.

①하지 말아야 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1)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염려하게 됩니다.

◆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눅 10:41)

2)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 6:25)

3) 미래의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 6:34)

→ 통계결과,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85%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는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는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눈앞에는 절망 밖에 보이지 않아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돌보시며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②해야 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나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앞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③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나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오히려 억지로라도 좋으니 감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헤아려보고 종이에 작성해 보면 좋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이렇게 힘이 들 때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야!” 라고 한 번 말해 보세요.

환경은 염려를 이기지 못합니다. 전보다 더 좋은 상황일지라도 염려나 걱정거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지금이나 앞으로도 염려나 걱정거리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인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이기는 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에 임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바로 행동의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7. 기도에는 또 어떤 유익점이 있습니까? 시편 34:4

40여 년간 인생 상담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앤 랜더스(Ann Landers)는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매일 2000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모든 편지를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두려움’ 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며 두려움 그 자체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공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 받습니다. 지금 무슨 일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떤 종류이든, 얼마나 큰 것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8.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13-14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계속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영영 자식을 갖지 못하리라고 단념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과 그 아이가 할 일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그 후 정말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평생 자기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엘리사벳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인생 황혼기인 노년에 말입니다. 아마 당시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전 세계적인 톱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으로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일에 온통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하는 속담처럼 불임녀 엘리사벳의 출산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 뒤덮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이웃들은 출산 소식을 접하고 온통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열악하거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인내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시 기쁨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어쓰기 요한복음 16:24

기도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 양(Adoration)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백(Confession)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알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감 사(Thanksgiving)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목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간 구(Supplication)

특별한 요청입니다. 먼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네 단어의 영어 첫 글자를 따면 “ACTS(사도행전)”가 됩니다. 이것을 기도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용 요한복음 16:24

당신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네 영역의 특별한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당신이 기록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요한일서 5:11-12과 요한복음 16:24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제3과 승리의 확신

먼저 앞에서 외운 두 구절을 복습하십시오.
정확하게 암송하였으면 다음 □에 표시하십시오.

□ 요한일서 5:11-12 □ 요한복음 16:24

이제, 고린도전서 10:13을 외우십시오.

승리의 확신이란?

승리 : 어떤 대상과 싸우거나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제3과에서 다루는 대상은 인생의 시험거리를 말합니다. 자신이 그 대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넘어지게 하고 울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혹(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주체는 영적 어두운 세력인 사단, 마귀입니다.

ex)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예수님께 돌을 띄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 등

②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의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Test) 또는 시련(trial)이라고 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ex)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사건, 욥의 시련 등

묵상 고린도전서 10:13

이 말씀은 당신이 당하는 모든 시험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우리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 시험이 올 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 시험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십니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 ‘시험 당할 즈음에’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종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1. 야고보서 1:2-4에 의하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겪는 시험거리들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못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주는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는 잘못 삼킨 이물질로 인해 소화기관이 상처를 입으면 이를 녹여 없애기 위해 강력한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이때 이물질이 소화되지 않으면 분비물이 등글게 감싸 점점 자라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즉, 조개껍데기 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에 대한 아픔과 불편함을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뎌내어 결국에는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면 내 안에 진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주워지는 완전하고 성숙한 깊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금이 고온에서 단련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말입니다.

◆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3~4)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10)

● 영국 사람들이 한창 싱싱한 청어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 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됐습니다. 고기잡이 선원들은 청어를 산 채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 수족관 안에 상어를 한두 마리 넣어보았습니다. 순간 상어가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어가 상어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청어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기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 청어를 산 채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있는 상어라는 시험거리의 자신을 싱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13-14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Temptation)을 말합니다.

유혹의 주된 근원은 바로 욕심입니다. 14절 다음에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는 평생 넓고 기름진

땅을 소유하기 원했던 바흠이라는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 마을의 촌장은 하루 안에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조건으로 종일 걸은 만큼의 땅을 1000루블의 싼값에 팔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바흠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더위와 졸음과 싸워 이겨가며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출발지에서 너무 많이 와버렸지만 해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기에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게 달려온 까닭에 마을 사람들의 축하도 받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고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흠이 차지한 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2미터도 채 안 되는 무덤뿐이었습니다.

3.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15-16

① 육신의 정욕 :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쾌락, 욕망

육신의 즐거움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욕망을 낳게 합니다. 처음에 담배를 피울 때 아무 멋도 모르고 피우지만 계속해서 흡연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아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강도가 심한 죄를 원하기에 마치 담배와 술에 중독된 사람처럼 죄에 중독이 되고 맙니다.

②안목의 정욕 :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한 탐욕

시각에서부터 오는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살인이나 폭력 장면을 보았을 때, 만화나 잡지 혹은 인터넷 동영상에서 야한 내용을 접할 때면 어김없이 마음과 생각을 교란됩니다. 시각적인 쾌락이 낳은 범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뉴스거리가 되곤 합니다. 눈의 탐욕으로는 온라인 게임 중독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를 넘어선 쇼핑으로 인한 빚과 도에 지나친 성형수술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③이생의 자랑 : 소유에 집착하는 오만스러운 자랑이나 허영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 혹은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과대평가하여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장거리가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부나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외모가 될 수 있습니다.

4. 베드로전서 5:8을 읽으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유혹합니까?

본문 말씀에는 사자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고파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자입니다. 「KBS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가 어떤 먹잇감을 주로 공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뛰지 못하는 짐승, 연약한 새끼, 허점이 보이는 초식 동물들을 노립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자를 자신의 희생물 곧 미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일성수 안 하고, 예배를 등한시 하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생활도 안 하는 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2)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은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주일성수 잘 하고,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 말씀도 꾸준히 읽고, 기도생활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3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거나 유혹을 받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신변의 안전을 돌보는 일을 임무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경호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또는 괴롭히는 이로부터 신변 안전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경호를 의뢰합니다. 유명인사가 아닌 일반인을 하루 경호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개 A급은 100만원, B급은 50만원, C급은 20~2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평생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매우 안전한 경비 시스템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남극 탐험가 새클턴의 일화

새클턴은 언젠가 탐험 중 탐험선이 파괴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지의 얼음 위에 많은 동료들을 남겨두고 대원 중 두 사람과 작은 보트를 타고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들은 남미의 남단을 향해한 후 눈과 얼음으로 덮인 야산을 방황하다가 겨우 마을에 도착하여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얼음 위에 남아 있던 대원들도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새클턴은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일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조를 요청하려 간 사람은 3명이었는데 자꾸 4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대원 위슬리가 나중에 ‘대장님,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들 안에 또 한 분이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슬리의 고백을 통해 나의 느낌이 명백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실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안내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6. 히브리서 4:15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 예수님

연약함 : 우리는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한계성을 지님

동정 :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인간과 공통점)

죄는 없으시니라 :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인간과 차이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유혹을 받거나 위기 때에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곤란한 사정을 돌보고 거기서 구해 주십니다.

●심리학자 헨리 나우웬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우리의 지난 과거에 입은 상처들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이나 감정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 성적인 학대를 경험↔상담자가 되어 / 질병 / 결손가정 / 장애인 / 사업실패 / 이별 등의 상처가 있는 이들이 곧 치유자가 되어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처럼 인간의 희로애락(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도, 유혹에 넘어져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 앞에 낙심이 되고 어두운 절망에 빠져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고통스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기에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성껏 도와주시며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사...”

7.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태복음 6:9,13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성경책 첫 면에 있는 ‘주기도문’을 말합니다.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다가

오는 현실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께 능히 극복케 해달라고, 유혹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한 알콜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고단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많이 지쳐있을 때 때마침 같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병원 예배가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회복이 되었고 드디어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해도 좋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문을 나와 집까지 걸어가는데 마침 길가에 있는 화려한 술집이 보였고 완전히 잊은 줄로만 알았던 술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술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술집을 보니 큰 유혹이 됩니다. 완전히 잊은 줄로만 알았던 술이 떠오릅니다. 다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 술집에서 가까운 우유부패 상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만 내고 마음껏 배부르게 우유를 마실 수 있기에 배가 터질 정도까지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술집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9,11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유혹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경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유혹은 찾아올 수 있기에 평소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75% 정도가 운전자의 방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무사고로 운전했으니 자심감이 생겨 다른 행동을 하거나 앞을 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깜박하는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달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8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너무 끔직한 일입니다. 그럼으로 교통사고에는 면역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에 면역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간사도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늘 담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음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전 4:3)

◎술의 유혹을 받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

◎뇌물의 유혹을 받을 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출 23:8)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27:24)

요한일서 5:4-5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이시기에 인간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시고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A라는 프로 농구팀과 B라는 동네 농구팀과 시합을 하면 번번이 동네 농구팀은 꺾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농구팀에 마이클조던이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농구팀이 이길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의 황제가 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신 능력의 예수님께서서 내 편이 되어 나와 함께 뚫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16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물질의 유혹, 명예와 야망의 유혹, 육체의 유혹 등 온갖 화려하고 달콤새콤한 맛과 모양을 가진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즐비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몇 번만 눈길을 주고 조금만 마음을 내보인다면 “OK! Thank You!” 하고 우리에게 달려올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전시해 놓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탄의 꾀임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십니다. 또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7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이먼튼 암연구소의 칼 사이먼튼 박사는 암환자를 연구한 결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의학을 사용하더라도, 환자의 마음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암은 낫기 어렵다’, ‘암에 걸렸으니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대부분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암은 반드시 낫는다’, ‘암과 싸우겠다’ 는 강한 의지를 가진 환자는 암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마음 자세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마귀와 정면승부를 벌이면 마귀는 도망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검은 얼굴로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수법은 '타협'이라는 인간의 약점입니다. 인간에게 전에 없던 유혹이란 없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하는 쉬운 타협이 유혹에 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유혹 앞에 흥정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 몇 년 전에 일입니다.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기도굴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저를 향해 엄청나게 큰 비단구렁이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저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곧 어떤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사람은 뱀의 몸통을 잡고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꾸었던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단구렁이는 저를 유혹하는 마귀였는데 저는 대적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문간사 경험담)

외어쓰기 고린도전서 10:13

적용 고린도전서 10:13

당신을 자주 곤경에 빠뜨리는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일서 5:11-12, 요한복음 16:24, 고린도전서 10:13을 계속 복습하십시오.

제4과 사죄의 확신

먼저 앞에서 외운 세 구절을 복습하십시오.
정확하게 암송하였으면 다음 □에 표시하십시오.

□ 요한일서 5:11-12 □ 요한복음 16:24 □ 고린도전서 10:13

이제, 요한일서 1:9을 외우십시오.

사죄의 확신이란?

사죄 : ‘죄가 사해졌다.’ 라는 뜻으로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묵상 요한일서1:9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백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담긴 부끄러운 것들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라면 국물이나 흙탕물이 묻은 흰색 T셔츠를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한 후에 꺼내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 영혼에 묻은 죄라는 라면 국물이나 흙탕물도 자백이라는 세탁기를 통해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1:8,10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죄를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게 적의를 품고 일부러 간음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땅에 손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사람들은 머뭇머뭇하더니 하나둘씩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b)

◆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일 3:15a)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고 악이 판을 치며 어두운 영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뉴스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간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계속 등장합니다. 안경을 쓴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경을 착용하면 먼지가 묻기에 주기적으로 계속 닦아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 있으면 먼지가 떠다니지 않기 때문에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마치 먼지처럼 떠다니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당신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139:23,24

죄를 좀 짓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 일 때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다시 넘어지는 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를 한 번 보세요! 교육을 인도하는 간사라서 혹시 죄를 잘 짓지 않을 것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곧 보면 죄의 현장에 제 자신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쩔 때는 죄를 짓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구제불능처럼 느껴져요. “아! 내가 또 범죄했구나. 정말 왜 이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8:18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숨김없이 죄의 내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죄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잠언 28:13

‘죄를 자복하고’에서 자복이란 자백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버리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버리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버린다는 말은 ‘그만두다, 끊다, 폐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코푼 휴지 아깝다고 다시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흥행되었을 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타짜, 사기 도박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타짜의 인생을 방송하였습니다. 전직 타짜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시골에서 소박하게 실내분수대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남자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떻게 타짜의 길을 접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지난날을 회상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도박을 끊고자 별 시도를 다했지만 그 암흑세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생결단을 내리고 독한 마음으로 오른손에 돌맹이를 잡고 왼손 손등을 수도 없이 내리찍었다고 합니다. 마치 믹서기에 간 고기처럼 으깨진 왼손을 수십 번 꺾맨 바늘 자국을 보여주며 그 계기로 도박세계를 떠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버리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되지 않을지라도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깨끗케 하실 것이요”

4. 시편 86:5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질문 :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즐거움을 느끼세요?

잠 잘 때, 먹을 때, 수다 떨 때, 독서, 영화, 운동, 여행, 공부, 노래, 놀이기구 탈 때 등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유, 즉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합니다.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라는 말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위에 있는 건물을 보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초고층 빌딩 앞에 서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세계 10대 건물을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이나 타워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보면 규모가 큰 건물일지 몰라도 하늘에서 보면 모두 평면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상에서 건물의 층이나 높이를 보고 규모를 판단하듯이 죄 또한 대수롭지 않은 죄라서 1층짜리 죄, 작은 죄라서 3층, 조금 큰 죄 10층, 중죄 50층, 아주 큰 죄 100층 등으로 그 죄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마치 하늘에서

지상을 볼 때 평면으로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모두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당신이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7

질문에 나오는 죄 사함이란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피로 인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어떤 노예가 노예시장에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자비로운 사람이 그 노예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증서를 만들어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입니다.” 이렇게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고 값을 지불한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빌린 큰돈을 값을 길이 없어서 끝내는 법정에 서야했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몇 년의 실형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기 전에 그를 무척 사랑하는 친구가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친구가 그 빚을 다 청산하여 주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그 사람처럼 인간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지우거나 용서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스스로 자신을 정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인간은 죄 된 본성을 좇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인간들의 죄 된 모습을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빚을 대신 갚아주었던 친구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형수처럼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에 인간 각자 각자가 죽은 것과 동일하며 대신 빚을 갚아주었던 친구로 인해 빛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사람처럼 인간 또한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 5:14b)
-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b)
- ◆ <「그→예수」로 고쳐서 읽기>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6.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히브리서 10:12은 무엇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까?

질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단 한 번의 제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씀은 인간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히 7:24)

[알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실망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차차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성막에 있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제물을 잡고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립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나누어서 불에 태웁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 비로써 자신은 죄에서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에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만들었기에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실물이 아니라 모형이었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완성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형은 실물을 설명하는 것으로 실체는 아니지만 곧 실물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통해 사람들은 앞으로 완성하게 될 실물을 보며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형 같은 제사 제도를 폐지해 버리시고 실물인, 훨씬 더 나은 제사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고 흠도 없는 매우 깨끗한 재물로 제사를 드리면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적합한 재물이 있었는데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한 영원한 제사가 드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한 번의 제사는 전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과거, 현재, 미래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7.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히브리서 10:17

죄의식은 자신이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식

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죄의식을 느끼면 죄책감, 분노, 미움, 수치, 두려움, 불안감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질문을 보니 하나님께 자백했는데도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백한 이의 죄와 악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왜 일까요?

① 사탄이 계속 죄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후회와 부끄러운 감정을 심어줍니다. 인간은 계속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관계에 있어서 서먹서먹해지고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런 심리를 알기에 자백한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여 우리를 미혹케 합니다.

②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어?” 아닙니다. 성경말씀에는 하나님께 어떤 죄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그 죄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③ 올바른 자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할 때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가슴 깊이 아파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시계가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건너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후배가 시계를 훔친 범인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계를 가져간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범행을 무효로 하고 시계는 그냥 잃어버린 셈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훔친 이가 내가 그의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교 길에서 단둘이 마주쳤을 경우 그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각되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과 동시에 당황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가 나와 다시 편안한 관계를 맺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행위를 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길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며, 항상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용서되었다." 그럼으로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마치 낙서투성이인 벽지에 깨끗한 벽지를 도배한 것과 같습니다. 죄라는 낙서는 고백이란 하얀 벽지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게들이 모래 위에서 들락거리는 구멍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모래성을 쌓으려고 파서 생긴 구멍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중기로 깊이 판 곳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는 작은 구멍, 중간치 구멍

그리고 큰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밀려오면 그 구멍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멍들은 다 똑같이 없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께 가져가면 밀물이라는 용서로 다 없어지고 맙니다.

8.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에베소서 4:32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 6:14-15)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들이 많습니다. 용서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에게 우리는 “용서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삶을 통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실수와 실패로 넘어진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받아주고 거울을 보면서 웃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왜 벌써 절망합니까? / 정문술 / 전 미래산업 사장

엔지니어들은 야전침대까지 갖다 놓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부분적인 성과들은 있었지만 아직 성패는 불투명했다. 조카 갯돈까지 끌어다가 연구비로 쏟아부었다. 더 이상 끌어다 댈 돈도 없었다. 집도 날아갈 판이었고 그나마 남아 있던 그림 몇 점도 모조리 팔아치운 상태였다. 3년째였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다. 지금껏 사업을 하면서 월급날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직원과 사장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었다. 당시 내 수첩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다. 은행 관련, 사채 관련 이자만도 하루에 대여섯 건씩 돌아왔다. 어음은 또 어음대로 쳐들어왔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나의 신용등급은 땅바닥을 기고 있었다. 아침부터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더니 모두들 사람취급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동창이고 친척이고 모두 나를 꺼리는 눈치였다. 이해는 하지만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액수를 맞춰놓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빚독촉도 무서웠지만,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직원들에게 웃는 낯을 보여 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공중전화로 경리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어 못 들어갈 것 같으니, 은행에서 봉급 찾아오는 대로 이상 없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5시가넘어사무실로들어갔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입사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된 어린 경리는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다.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침통하게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시 개발팀장이었던 백정규를불러세웠더니그제서야자초지종을이야기했다. “월급을 찾아오다가, 은행 앞에서 날치기를 당했답니다.” 머리를 뒀가로 된통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기가 막혔다. 그날 아침 돈을 꺼주겠다면서 전화기에 대고 면박을 주던 고향 친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딱 한 번만 더 속아주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자식아.’ 그러나 나는 경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대수롭지 않은 척 웃어주었다. “괜찮아, 임마. 그럴 때도 있는 거지.”

●폐결핵으로 꼬박 14년을 누워 지내야 했던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용서에 대한 그녀의 일화 한 토막을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책에서 소개.

내가 열네다섯 살 때의 일이니까 거의 오십 년이나 된 옛날 일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다. 어린 남동생이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밥그릇 네다섯 개를 쌓아서 부엌까지 나르려고 했다. 내가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옮기지 않아도 돼” 라고 하자 남동생은 “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다음 순간 동생은 무언가에 걸린 것인지 앞으로 넘어지며 밥그릇을 떨어뜨렸다. “그러게 내가 말했지.” 나는 먼저 그렇게 말해 놓고는 밥그릇 조각을 주우면서 계속해서 나무랐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당정하게 동생을 위로했고 나중에 나를 살짝 불러서 말했다. “아야짱, 너 자신은 일평생 그릇 하나 깨지 않을 인간인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야단치는 게 어디 있니?”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필시 인간이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따라서 서로 용서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리라.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요오코는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 그래서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추운 겨울날 눈 덮인 언덕길을 오른다. 높은 언덕에 오른 요오코는 하얀 눈길 위에 남겨놓은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을 보는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자신은 분명히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똑바로 앞만 보고 걸어왔는데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은 비뚤어지고 흐트러져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자각하고 요오코는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하게 된다.

외어쓰기 요한일서 1:9

적용 요한일서 1:9

당신이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적어 보십시오.

그것을 지금 자백하고 요한일서 1:9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요한일서 5:11-12, 요한복음 16:24, 고린도전서 10:13, 요한일서 1:9을 계속 복습하십시오.

제5과 인도의 확산

먼저 앞에서 외운 네 구절을 복습하십시오.
정확하게 암송하였으면 다음 □에 표시하십시오.

□ 요한일서 5:11-12 □ 요한복음 16:24 □ 고린도전서 10:13 □ 요한일서 1:9

이제, 잠언 3:5-6을 외우십시오.

인도의 확신이란?

인도 : ‘이끌어주다, 안내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묵상 잠언 3:5-6

당신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 온갖 성의를 다하려는 정성스런 마음 / 신뢰 : 굳게 믿고 의지함

마치 선물로 종이학 1000마리가 담긴 유리 상자를 이성 친구에게 건네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산거야!” 와 “이거 내가 한 마리씩 직접 접은 거야!” 중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후자와 동일합니다.

②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란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는 말인데 즉,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인간적인 교육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 4:14).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③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마음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영어성경(NIV)을 보면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라고 표현했는데 즉,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곧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1.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해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2:8

가르쳐 보이고 :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단체에 속하여 관광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여행객들에게 관광 행로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날마다 어떤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하며 여행객들의 선두에 서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관광여행의 가이드처럼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 주목이란 말은 어린아이와 함께 복잡한 길을 걷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데 행여 다른 곳으로 갈까봐 주의 깊게 보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 곁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니다. 삼일교회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좋아하는 한 사람에게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설레고 긴장이 되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훈계하리로다 : 훈계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 길을 걷고 있던 어린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에 마음을 빼앗겨 어머니 옷자락을 놓아 버립니다. 잠시 후 이를 알아챈 어머니는 아이에게 다가가 타이르고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말씀, 사람 등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의를 주십니다.

2. 로마서 12:1,2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길 원하시는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①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기에 이제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산 제물’은 ‘지금 살아 있는’이라는 보편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②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인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기주의, 성적 타락, 부도덕 등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금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이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어떤 선택이나 결정 및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17:7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 몸이나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등산을 할 때 등산용지팡이를 의지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동할 때 휠체어를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등산용지팡이나 휠체어가 의지의 대상이듯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 29:25)

의뢰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어야 합니다.

◆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이다(사 26:3)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4. 예레미야 17:5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알림] 교육생들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curse)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번 질문과 반대로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풀이하면 됩니다.

사람을 믿으며 + 욕신으로 그 권력을 삼고 +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 저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하나님 위에 두고 더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욕신으로 자신의 권력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학력, 외모, 배경, 재물, 지식 그리고 후원자 등이 힘의 원천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눅 12:16-21)

5.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이사야 55:8-9

질문을 보면 자신의 명철(understanding 이해·깨달음) 즉, 자신의 머리로 한도를 정하거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단정해서는 왜 안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과 길이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길과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이나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는 반면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떠올리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 혹은 사회적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가 가져다주는 근심거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렵고 힘들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나 해석은 전체를 보기에 인간과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고 보니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생활은 마치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나 관점이 높아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고집하여 높이 세울 때 하나님의 생각이나 관점은 낮아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6. 예수님께서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르셨습니까? 요한복음 6:38-39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따르셨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도 결정을 내릴 때 그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신에게 주신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자’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뜻합니다. 자신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11:25-26)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일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과 수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을 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고] 몇 년 전에 일입니다. 길가에 6인승 승합차 다마스를 세우고 급하게 건물 4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업무를 보고 내려왔는데 세워 둔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차가 건너편에 주차돼 있던 코란도 차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때는 이미 늦어 버렸습니다. 시간에 쫓겨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두지 못했고 약간 경사진 길에서 차가 후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 차는 조금 찌그러진 것 외에는 다른 파손이 없어서 외관상 괜찮았지만 코란도는 전조등이 파손돼 보기 흉했습니다. 다행히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냥 가려고 했지만 곧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고 다음부터 잘 하자는 마음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연락처를 남길까? 연락이 오면 수리비로 얼마나 달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순간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이 무척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전액 지불하겠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차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센터에 가서 차량 수리비 35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사소한 부주의로 물질을 잃었지만 정직을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를 계기로 정직하고 진실한 열매가 얼마나 유쾌한지 그 맛을 아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문간사 경험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7.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 : 돈 사용, 시간 사용, 직업, 결혼... 등등)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8.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시편 119:105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말씀을 주셨습니다.

→ 캄캄한 방에서 사물을 분간하려면 등이나 촛불과 같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캄캄한 내일을 비추는 등불이며 빛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미래가 불투명하여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말씀은 인생행로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떤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지 알게 됩니다. 혹시 그 길이 좁고 험해 보여도 그 길을 걸을 때 목적지로 가는 옳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12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온 영’이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어떤 일에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선택 혹은 판단을 해야 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9.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5-7

질문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에 찾아온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든 상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직조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은 실이 엉키면 버튼을 눌러 공장장을 불러 엉킨 실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야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공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공장장을 부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엉킨 실을 풀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더욱 엉킬 뿐이었습니다. 한참 혼자 진땀을 흘리던 여공은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눌러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공장장님! 저는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이 풀리지 않았어요” 공장장은 여공에게 “여공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일은 공장장을 부르는 것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이 엉키는 것처럼 살다 보면 작고 큰 문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잡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10.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36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과 위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잘 인

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은 훗날 받게 될 **큰상**이며 **영생**을 의미합니다.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 22:12)

◆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25)

프랑스 속담에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취, 성공, 아름다운 결과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워지는 열매입니다. 밥을 짓는데도 뜸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도 조리해서 식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버스나 전철도 타려고 해도 도착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물을 잘 파는 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도 그는 곧잘 우물을 파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예! 저는 우물을 파는 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잘 불러 다닙니다.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꼭 하나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팝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인내한다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외어쓰기 잠언 3:5-6

적용 잠언 3:5-6

당신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11-12, 요한복음 16:24, 고린도전서 10:13, 요한일서 1:9, 잠언 3:5-6을 계속 복습하십시오.